

사회 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의약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권 혁 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

사회변동을 이끄는 가장 창조적인 힘은 사회적 갈등이다. 사회생활이 있는 모든 곳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불쾌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보다 갈등이 없다는 것이 놀랍고도 비정상적인 것이며, 우리는 갈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회나 사회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Ralf Dahrendorf-

I. 머리말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직접 간접으로 다른 사람과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치하에서 국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 1987년 6·29선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6공화국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민주화, 자율화, 탈규제가 진전되면서 개인간, 집단간의 이해 상충이 폭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사문제, 지역감정문제, 세대간 갈등, 남녀간 갈등, 종교갈등, 직업종간 이해대립 등이 좋은 예라 하겠다.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정책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즉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익집단은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집단의 욕구, 소망, 가치관 그리고 기대 등을 집단의 이익으로 결집시키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나 정책결정과정 자체에 접근하여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끼리 충돌할 수 있다. 집단의 이익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집단 성원들의 사익을 위한 이익표출은 자칫 국가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이익집단 존재의 독립성과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지나치게 작용하여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익집단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문제될 게 없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집단의 사익이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정책입안과 집행이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회 전체에 불안감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폐업을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의약분업파동이다. 사실 의약분업사태는 근래 들어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 아니라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 개정 약사법에 분업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무기한 유보된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약 30년 동안 의약업계의 엄청난 갈등과 반발로 인해 정책시행이 보류된 장기 숙제인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지난 1994년 한약분쟁 이후 1997년 7월에서 1999년 7월 사이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약사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다 1998년 정부와 의약계가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1999년 7월 1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다시 약사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한 것이다.

올해 들어 의약분업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인 지난 6월 20일부터 의료계가 폐업을 선언하여 7일 동안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6월 26일 정상화가 되었으나 또다시 8월 11일 의료계가 2차 폐업을 감행하여 10월에야 의사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아직도 분쟁 재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은 강력한 전문이익집단들의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시행이 수십년 동안 보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 여러 번 수정되기까지 하였다.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사와 약사집단간의 갈등과 정부의 미숙한 조정 역할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폐업사태는 정부에게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통해 집단간 이해상충을 중재 또는 조정해야할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 당사자로 전락하여

사태를 중재, 조정해야할 주체가 상실됨으로 인해 의약분쟁 파동이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과연 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 대안으로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대립되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민단체 역시 조정역량과 정치적 힘, 그리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의약분쟁 사태에서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조정력의 한계는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결국 마지막 조정자로서 언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들어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결코 외부관찰자 또는 제3자적 존재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비공식적 수탁기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을 경우 언론 역시 공식적인 국민의 수탁기구인 행정, 입법, 사법조직과 함께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의약분쟁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는 언론 또한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겠다.

조정(mediation)이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정에 개입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결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이 조정자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arbitration)와 구별된다. 중재는 제3자(주로 해당분야 전문가)가 해결책을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제시 또는 강제하는 것이다.

분쟁의 조정자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만 조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① 무엇보다도 조정자는 분쟁의 당사자인 양 집단의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②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또한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평하여야 한다. ④ 소위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놓고 본다면 언론이야말로 정부를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쟁 조정자라고 생각한다. 다만 네 번째 조건인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이 동원할 수 있는 여론이야말로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힘에 못지 않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언론은 조정의 목적을 집단갈등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정취수혜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정자로서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언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쟁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적대적인 분위기를 해소시켜 당사자들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각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언론이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몇 가지 부산물을 얻을 수 있다. 갈등상황이 공개되고, 당사자들간의 직간접적인 대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당사자들이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협상에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여론을 의식하여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나중에 당사자들이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언론은 계속적으로 당사자들간의 갈등의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는 갈등의제를 망각하지 않고, 해결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언론의 의제설정기능(agenda-setting function)이다.

다섯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일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만 당사자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조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

고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때 언론은 공익의 보호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언론이 그저 객관적 저널리즘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앵무새나 필경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과감히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항상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언론이 제시한 대안을 놓고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언론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립성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만약 당사자들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때로는 조정자인 언론이 힘이 약한 당사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타협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금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해 우리 나라 TV방송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으며, 과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의료계 폐업사태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도하였는가?
2. 어떤 내용을 보도하였는가?
3. 보도내용은 공정하였는가?
4.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뉴스 프로그램은 KBS-1TV의 9시 뉴스와 MBC TV의 9시 뉴스데스크, 그리고 SBS의 8시 뉴스이다. 분석기간은 6월 20일에서 26일까지 있었던 1차 의료계 폐업사태와 8월 11일부터 시작된 2차 의료계 폐업사태 기간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의료계 폐업사태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폐업 4일

전인 6월 16일부터 1차 폐업 정상화 직후인 6월 28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잡았다. 또한 2차 폐업사태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2차 폐업 직전인 8월 7일부터 23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는데, 분석기간 중인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남북이산가족상봉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내용분석은 분석기간을 격일로 선정하여 1차 폐업, 2차 폐업 각각 1주일씩 모두 14일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각기 독립된 기사꼭지로 하였다. 코딩은 두 명의 코더들이 담당하였는데 코더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연구자와 같이 토론을 벌여 문제를 해결하였다.¹⁾

본 연구에서 기사유형은 크게 스트레이트, 해설기사, 기획기사, 단신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이트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보도한 뉴스를, 해설기사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의 경과와 전망을 하는 기사로 하였다. 기획기사는 방송사가 시리즈물로 구성한 뉴스나 외국의 사례를 특별히 취재 보도한 기사로 구분하였다.

기사내용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 및 불만”, “의약분업의 문제점”, “파업돌입 및 전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및 처리”, “파업철회 및 의료정상화”, “폐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된 소송과 마찰”, “검찰의 수사 및 관련자 구속”, 기타 등이다.

기사의 갈등성은 갈등, 화합, 중립으로 구분하였다. 갈등기사는 당사자간의 언어 또는 행동상의 충돌과 대결구도를 담고 있는 기사를 말한다. 화합기사는 당사자들이 갈등이나 이견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말하며, 중립기사는 갈등과 화합 기사가 아닌 나머지 기사를 말한다.

각 방송사들의 하루 방송뉴스 건수가 제각기 다르고,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요일별로 방송뉴스 건수가 달라 이들의 뉴스밸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루에 방송된 전체 뉴스 건수의 방송순서를 4등분하여 톱뉴스에서부터 1/4순위까지를 상, 1/4순위에서 2/4순위까지를 중상, 2/4순위에서 3/4순위까지를 중하, 3/4순위에서 끝 뉴스까지를 하로 분류하였다.

보도태도는 앵커나 기자들의 멘트에서 나타난 방송사의 의로계 폐업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

사운드 바이트 내용의 성격은 정보적(사실에 관한 진술), 평가적(옳고 그름에 대한 진술), 정서적(좋고 나쁨에 관한 감정적 진술)으로 나누었다.

IV. 분석결과

1) 코더간의 신뢰도를 계산해 본 결과 스코트 파이계수가 .84이었다.

1. 관심도(보도량)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 관련 기사건수를 보면 KBS와 MBC가 똑같이 73건, SBS 59건으로 모두 205건이다. 방송사당 하루 평균 4.9건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셈인데, 방송3사 모두 1차 폐업개시일인 6월 20일과 22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7건에서 12건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폐업철회가 시작된 8월 19일 이후에는 보도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표 1 참조).

분석기간에 방송되었던 총 기사건수는 1,012건으로 의료계 폐업사태기사의 비율은 20.3%이다. 방송사별 전체기사에서 의약분쟁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KBS가 20.3%, MBC가 19.5%, 그리고 보도건수에서는 가장 적었던 SBS가 21.3%로 보도비율에 있어서는 가장 높았다.

<표 1> 의약분업 관련 기사 건수

	KBS	MBC	SBS	전 체
6월 16일	3	3	2	8
18일	3	3	2	8
20일	11	11	11	33
22일	12	11	10	33
24일	10	9	6	25
26일	5	6	5	16
28일	3	3	2	8
8월 7일	3	4	2	9
9일	2	4	5	11
11일	9	11	7	27
13일	4	4	3	11
19일	2	1	1	4
21일	3	2	2	7
23일	3	1	1	5
계	73	73	59	205
전체 기사건수	360	375	277	1,012
총기사중 의약분업 관련기사 비율(%)	20.3	19.5	21.3	20.3

방송시간량을 보면 MBC가 총 124분 21초, KBS가 116분 26초, SBS가 95분 41초로 MBC가 가장 많았다. 방송보도 기사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3사들은 1차 폐업기간인 6월 20일, 22일, 24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무려 최

고 20분까지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표 2 참조). 한편 기사당 평균 길이는 MBC가 102.2초, KBS가 95.8초, SBS가 97.3초로 MBC가 가장 길었다.

<표 2> 방송사별 의약분업 관련 기사 방송시간

	KBS	MBC	SBS	전 체
6월 16일	5분 17초	5분 13초	3분 45초	14분 15초
18일	5분 22초	6분 15초	2분 39초	14분 16초
20일	18분 6초	16분 23초	17분 58초	52분 28초
22일	18분 40초	19분 48초	17분 32초	55분 59초
24일	17분 17초	13분 52초	8분 23초	39분 32초
26일	8분 6초	8분 58초	8분 17초	25분 21초
28일	4분 53초	5분 22초	3분 7초	13분 22초
8월 7일	4분 53초	6분 49초	4분 15초	15분 57초
9일	3분 13초	7분 4초	6분 26초	16분 43초
11일	14분 2초	19분 59초	11분 24초	45분 24초
13일	3분 57초	7분 26초	5분 5초	16분 28초
19일	3분 21초	1분 34초	1분 16초	6분 11초
21일	4분 39초	3분 50초	4분 6초	12분 35초
23일	4분 44초	1분 49초	1분 29초	6분 2초
계	116분 26초	124분 21초	95분 41초	336분 33초
기사당 평균	95.8초	102.2초	97.3초	98.5초

2. 기사유형

기사유형을 보면 절대 다수인 85.9%가 스트레이트 뉴스이며, 기획기사가 2.0%, 해설기사가 7.8%이며, 단신이 4.4%이다. 결국 전체 기사의 90.2%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단신인 셈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획기사는 9.8%에 지나지 않아 방송3사는 이번 사태를 매우 피상적으로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 경향은 방송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KBS가 상대적으로 심층보도를 한 셈인데, 전체 기사의 15.0%가 기획-해설기사였다. MBC는 8.3%에 불과하였고, SBS는 가장 적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표 3> 기사유형 (%)

	KBS	MBC	SBS	전 체
스트레이트	79.5	87.7	91.5	85.9
기획기사	2.7	2.7		2.0
해설기사	12.3	5.5	5.1	7.8
단 신	5.5	4.1	3.4	4.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 = 5.5, df=6, p>.05$$

3. 기사내용

이번 사태에서 우리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 및 불만”이 2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18.0%로 두 번째, “파업돌입 및 전개”에 관한 내용이 14.1%, “정부와 국회의 대책 및 처리”내용이 13.7%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파업철회 및 의료정상화”가 10.7%, “폐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된 소송과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 9.3%, “검찰의 수사 및 관련자 구속” 내용이 4.9%이며, 기타가 5.4%이다.

결국 방송 3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주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진료 불편 및 불만”과 “인명 피해 및 소송” 등을 합하면 전체 보도 건수의 3건 중 1건(33.2%)이 환자와 관련된 기사인 셈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방송 3사 모두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장 많이 보도하였지만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KBS와 MBC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각각 19.2%, 23.3%)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SBS는 “파업돌입, 전개”와 관련된 내용(16.9%)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하였다.

<표 4> 기사 내용(%)

	KBS	MBC	SBS	전 체
파업돌입, 전개	15.1	11.0	16.9	14.1
정부, 국회의 대책	16.4	12.3	11.9	13.7
진료 불편, 불만	23.3	26.0	22.0	23.9
인명피해, 소송	8.2	8.2	11.9	9.3
검찰 수사, 구속	2.7	5.5	6.8	4.9
파업철회, 정상화	12.3	8.2	11.9	10.7
의약분업의 문제점	19.2	23.3	10.2	18.0
기 타	2.7	5.5	8.5	5.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9.4, df=14, p>.05$$

4. 뉴스 밸류

이어서 TV 3사가 의약분업사태 관련 기사를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서 어느 정도 비중있게 기사화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²⁾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폐업관련기사

2) 뉴스밸류와 뉴스 방송순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 방송현

가 톱뉴스로 보도된 것은 모두 20번으로 전체 톱뉴스 중(14일분×3방송사=42) 47.6%를 차지한다. 이어서 각 방송사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밸류를 상, 중상, 중하, 하 등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³⁾ 그 결과 전체 의약분업관련 기사의 절반인 50.2%가 상에 해당하였고, 31.2%가 중상, 14.1%가 중하, 그리고 겨우 4.4%만이 하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기사는 매우 비중있게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방송사별로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방송 3사가 거의 비슷하게 의약분업 관련 기사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었는데, SBS는 관련기사의 54.2%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고, KBS는 관련기사의 52.1%가 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MBC는 45.2%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SBS는 관련기사의 11.9%가 하의 뉴스밸류를 나타낸 점이 특이했는데, KBS는 하에 배치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MBC는 2.7%에 불과하였다.

<표 5> 뉴스 밸류 (%)

	KBS	MBC	SBS	전 체
상	52.1	45.2	54.2	50.2
중 상	32.9	31.5	28.8	31.2
중 하	15.1	20.5	5.1	14.1
하		2.7	11.9	4.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17.5, df=6, p=.007$$

이어서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비중있게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업철회, 정상화”관련 소식은 거의 모두가 톱 뉴스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의 90.9%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방송사들이 의약분

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뉴스를 먼저 방송하고 있으며, 또한 뉴스밸류를 측정할 때 뉴스순위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뉴스밸류는 해당 뉴스의 방송순위를 기초로 하여 측정하였다.

- 3) 각 방송사들의 하루 방송뉴스 건수가 제각기 다르고,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요일별로 방송뉴스 건수가 달라 이들의 뉴스밸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루 평균 방송뉴스 건수를 보면 스포츠 뉴스와 날씨를 제외하고 KBS가 25.7건, MBC가 26.8건, SBS가 19.8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루에 방송된 전체 뉴스 건수의 방송순서를 4등분하여 톱뉴스에서부터 1/4순위까지를 상, 1/4순위에서 2/4순위까지를 중상, 2/4순위에서 3/4순위까지를 중하, 3/4순위에서 끝뉴스까지를 하로 분류하였다.

쟁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인명 피해, 소송”관련 소식은 63.2%가, “진료불편, 불만”은 59.2%, “파업돌입, 전개”는 51.7%, “검찰 수사, 구속” 관련 소식은 50.0%가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37.8%,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겨우 14.3%만이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는 36.4%가 이같은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표 6> 기사 내용별 뉴스밸류(%)

	파업돌입, 전개	정부, 국회 대책	진료불편, 불만	인명피해, 소송	검찰수사, 구속	파업철회, 정상화	의약분업 문제점	기타
상	51.7	14.3	59.2	63.2	50.0	90.9	37.8	36.4
중상	31.0	57.1	20.4	26.3	30.0	9.1	37.8	45.5
중하	6.9	25.0	18.4	5.3	20.0		21.6	
하	10.3	3.6	2.0	5.3			2.7	
계 (사례수)	100.0 (29)	100.0 (28)	100.0 (49)	100.0 (19)	100.0 (10)	100.0 (22)	100.0 (37)	100.0 (11)

$$\chi^2=51.0, df=21, p=.0002$$

5. 보도태도 및 기사의 갈등성

앵커나 기자들의 멘트에서 나타난 방송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내용이 아닌 앵커나 기자들의 태도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사의 약 3건 중 2건인 64.4%가 중립적이었다. 그리고 전체기사의 17.6%가 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4.9%에 지나지 않았고, 5.4%는 정부와 의사를 동시에 비판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사의 약 4건 중 1건인 24%가 의사를 직접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을 지지하는 기사와 의사입장을 지지하는 기사는 똑같이 3.9%이었다. (표 7 참조).

한편 각 방송사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방송 3사 모두 중립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SBS는 이번 사태를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는데, 전체기사의 81.4%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SBS는 오히려 의사보다는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각각 3.4%, 6.8%)을 취했다. 반면에 KBS가 의사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전체 기사의 24.7%가 의사들에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입장지지에 있어서도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는 8.2%인데 비해 의사를 지지하는 기사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MBC 역시 KBS와 비슷하였는데, 전체기사의 21.9%가 의사 비판적 기사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 기사는 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MBC

는 의사지지 입장이 8.2%, 정부지지 입장이 2.7%로 지지입장에서는 의사 입장 지지가 많았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표 7> 보도 태도 (%)

	KBS	MBC	SBS	전 체
정부 비판적	2.7	5.5	6.8	4.9
의사단체 비판적	24.7	21.9	3.4	17.6
정부-의사 비판적	2.7	6.8	6.8	5.4
중립	60.3	54.8	81.4	64.4
정부지지, 동정	8.2	2.7		3.9
의사지지, 동정	1.4	8.2	1.7	3.9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27.6, df=10, p=.002$$

한편 각 방송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사태를 지나치게 “정부-의사”, “환자-의사”간의 갈등 또는 대결적 구도로 틀지었다. 기사 내용의 갈등성을 보면 전체기사의 64.9%가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그렸다. 이에 반해 화합은 8.8%, 중립은 26.3%이다. (표 8 참조).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이번 사태를 갈등과 대결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했는데 전체기사의 83.1%가 갈등과 대결기사이다. MBC는 71.2%가 갈등기사이다. 이와는 달리 KBS는 갈등보다는 중립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기사의 43.8%만이 갈등기사이고, 46.6%가 중립적인 기사이다. (표 8 참조). 한편 화합적인 기사는 KBS가 9.6%, SBS가 8.5%, MBC가 8.2%로 방송사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8> 기사의 갈등성 (%)

	KBS	MBC	SBS	전 체
갈 등	43.8	71.2	83.1	64.9
화 합	9.6	8.2	8.5	8.8
중 립	46.6	20.5	8.5	26.3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27.9, df=4, p=.0001$$

이어서 갈등관계를 묘사한 기사들만 뽑아서 방송사들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방송사들이 주로 “의사-환자”(45.1%), “의사-정부”(30.8%)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음

을 알 수 있다. 갈등기사의 75.9%가 “의사-환자, 정부”의 관계와 관련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방송사들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방송사별로 보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환자-의사”(50.0%)에 더 많은 초점을 주었으며, SBS는 타방송사들에 비해 “정부-의사”(32.7%) 관계에 초점을 둔 점이 두드러졌다.

<표 9> 갈등기사의 관계유형 (%)

	KBS	MBC	SBS	전 체
정부-의사	28.1	30.8	32.7	30.8
정부, 여당-야당	6.3	3.8	8.2	6.0
검찰-의사	6.3	9.6	8.2	8.3
환자-의사	50.0	44.2	42.9	45.1
약사-정부, 의사	3.1	5.8	8.2	6.0
의료계 내부	6.3	5.8		3.8
계 (사례수)	100.0 (32)	100.0 (52)	100.0 (49)	100.0 (133)

$$\chi^2=5.2, df=10, p>.05$$

계속해서 관계유형별로 기사의 성격이 갈등인지 화합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10>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관계가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묘사되었는데, 특히 “정부-의사”관계 기사의 97.6%, 그리고 “환자-의사” 관계의 85.7%가 갈등관계로 처리되었다.

<표 10> 관계유형별 기사의 갈등성(%)

	정부-의사	정 부, 여 당 - 야당	검 찰-의사	환자-의사	약 사-정 부, 의사	의료계 내부
갈 등	97.6	66.7	84.6	85.7	88.9	100.0
화 합	2.4	33.3	15.4	14.3	11.1	
계 (사례수)	100.0 (42)	100.0 (12)	100.0 (13)	100.0 (70)	100.0 (9)	100.0 (5)

$$\chi^2=10.0, df=5, p>.05$$

물론 이번 사태가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뉴스 또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 국민-의사간의 이분법적인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에 대해 비인간적,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6. 뉴스의 초점인물

이어서 어떤 사람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역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의사와 병원관계자”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결국 전체 기사의 대부분인 63.9%가 의사와 환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정부관리, 대통령 등)는 8.3%, 국회가 6.3%, 검찰이 4.9%, 그리고 “정부와 의사단체”를 동시에 초점인물로 다룬 기사가 5.4%, 약사단체가 2.9%이며, 기타가 8.3%이다(표 11 참조).

한편 1차 파동(6월)과 2차 파동(8월)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1차 파동에 비해 2차 파동에서 의사나 병원관계자에 초점을 둔 기사의 비율이 32.1%에서 45.9%로 크게 늘어났고, 환자나 시민단체를 초점으로 하는 기사의 비율 역시 1차 파동 22.9%에서 2차 파동 33.8%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서 의사와 환자에 초점을 맞춘 기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55.0%에서 79.7%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표 11> 초점인물 (%)

	6월	8월	전 체
환자, 시민단체	22.9	33.8	26.8
의사, 병원관계자	32.1	45.9	37.1
약사단체	4.6		2.9
정 부	7.6	9.5	8.3
국 회	6.9	5.4	6.3
검 찰	6.9	1.4	4.9
정부-의사	7.6	1.4	5.4
기 타	11.5	2.7	8.3
계 (사례수)	100.0 (131)	100.0 (74)	100.0 (205)

$$\chi^2=19.1, df=7, p=.008$$

7. 육성(sound bite) 분석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우리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초점 인물들의 육성(sound bite) 방송율은 74.6%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86.4%로 가장 높고, MBC가 76.7%이고, KBS가 63.0%로 가장 낮았다. 결국 SBS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초점인물의 육성 발언의 일부를 방송한 셈이다.

이어서 초점 인물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의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운드 바이트 내용을 정보적(사실에 관한 진술), 평가적(옳고 그름에 대한 진술), 정서적(좋고 나쁨에 관한 감정적 진술)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점인물의 사운드 바이트가 있는 전체 기사의 과반수인 53.3%가 정보적이며, 13.8%가 평가적, 그리고 32.9%가 정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이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초점인물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재미 있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환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은 대부분 정서적(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로 감정적인 말들이 많이 보도된 셈이다. 반면에 나머지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의사나 정부관리들은 대부분이 정보적인 내용이 많았으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평가적(33.3%)인 내용이 많이 방송되었다.

<표 12> 초점 인물별 사운드 바이트 내용 성격 (%)

	환자, 시민 단체	의사단체, 병원	정 부	국 회	정부-의사	약사단체	전 체
정보적	30.2	57.4	83.3	66.7	81.8	50.0	53.3
평가적	5.7	13.0	16.7	33.3	18.2	50.0	13.8
정서적	64.2	29.6					3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3)	(54)	(18)	(12)	(11)	(4)	(152)

$$\chi^2=51.3, \quad df=10, \quad p=.0000$$

8. 분쟁 조정자 역할 노력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이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3사 모두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지,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

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보면 모두 낙제점이나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SBS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표 13>에서 보듯이 갈등의제를 부각한 기사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는데,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12.3%로 가장 높고, MBC가 8.2%, 그리고 SBS가 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뉴스 시간에 분쟁의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대화를 직접 촉구한 기사는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4.1%, MBC가 2.7%, SBS가 3.4%이었다.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8.3%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송사별로는 KBS가 17.8%로 가장 높았고, MBC는 5.5%인데 반해 SBS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13> 조정자 역할 비율(%)

	갈등의제 부각	대화 촉구	대안 제시*
KBS	12.3	4.1	17.8
MBC	8.2	2.7	5.5
SBS	3.4	3.4	
전체	8.3	3.4	8.3

* p<.05

V. 맺는말

본 연구는 2000년 들어 6월과 8월에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뉴스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방송사간에 별 차이 없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당 하루 평균 4.9건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전체 보도 건수에서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이다. 방송시간량을 보면 MBC가 총 124분 21초, KBS가 116분 26초, SBS가 95분 41초로 MBC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이번 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인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 기사의 90.2%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단신이고,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획기사는 9.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 경향은 방송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심층보도를 하였는데, 전체 기사의 15.0%가 기획-해설기사였다.

셋째, 방송사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내용보다는 주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 보도 건수의 3건 중 1건(33.2%)을 차지하였다.

넷째,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비중있게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관련기사가 톱뉴스로 보도된 것은 모두 20번으로 전체 톱뉴스 중(14일분×3방송사=42) 47.6%를 차지하였다. 또한 뉴스밸류를 상, 중상, 중하, 하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의 절반인 50.2%가 상에 해당하는 것만 보아도 의약분업 사태는 매우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과업철회, 정상화”관련 소식은 거의 모두가 톱 뉴스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의 90.9%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다섯째,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를 대체로 중립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정부보다는 의사들에 대해 훨씬 비판적이었다. 전체 기사의 17.6%가 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4.9%에 지나지 않았다. 각 방송사별로 보면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SBS가 이번 사태를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반면에 KBS는 타방송사들에 비해 의사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전체 기사의 24.7%가 의사들에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입장지지에 있어서도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는 8.2%인데 비해 의사를 지지하는 기사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MBC 역시 KBS와 비슷하였는데, 전체기사의 21.9%가 의사 비판적 기사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 기사는 5.5%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방송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사태를 지나치게 “환자-의사”, “정부-의사”간의 갈등 또는 대결적 구도로 틀지었다. 기사 내용의 갈등성을 보면 전체기사의 64.9%가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그렸다. 이에 반해 화합은 8.8%, 중립은

26.3%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이번 사태를 갈등과 대결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했는데 전체기사의 83.1%가 갈등과 대결기사이다. 반면에 KBS는 갈등보다는 중립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기사의 43.8%만이 갈등기사이고, 46.6%가 중립적인 기사이다.

일곱째,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의사와 병원관계자”(37.1%)가 뉴스에서 가장 많은 초점을 받았으며, 이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아, 결국 전체 기사의 대부분인 63.9%가 의사와 환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지,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 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보면 모두 낙제점이나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SBS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의약과동을 매우 관심있고 비중있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게다가 전문적 지식도 결여되어 이번 사태를 피상적으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환자-의사”와 “정부-의사”간의 갈등과 대결의 틀로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여 결과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한 내용보도를 소홀히 하고 말았고,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또한 방송사들은 대체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의사단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의사들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결국 제3자로서의 공정한 자세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이익집단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터지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

첫째, 사태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동시에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특히 한 쪽 편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의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

이 높다 하겠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뉴스 시간 이외에 여러 시사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들간의 토론의 장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시청률이 가장 높은 뉴스 시간에 양 당사자들을 스튜디오로 부르거나 아니면 3월 방송을 통해 갈등 이슈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다. 혹자는 이러한 뉴스시간의 토론이 뉴스의 포맷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받고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면 프로그램 형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로 언론은 당사자들간의 갈등의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도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겠다.